중독포럼 4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제5회 정신건강정책포럼

"균형과 조절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관리정책"

Balancing & Moderation for Prevention of Alcohol Problem

- 일 시 : 2016년 7월 8일(금) 15: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관 : 중독포럼
- 주최 :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등록 : 성명,연락처,소속 이메일 발신 < addictionfr@naver.com >
- 문의 : 02-2258-7583 (중독포럼)
- 오시는길

  -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Tel. 02-2001-7651), 주차 3시간무료

중독포럼 Korean Addiction Forum

국립정신건강센터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중독포럼 4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제5회 정신건강정책포럼

"균형과 조절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관리정책"

초대의 말씀

송중기, 아이유... 배우 중 대세, 가수 중 대세라 할 수 있는 대표 연예인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술, 맥주와 소주의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할 것 같아 보이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젊은 대세배우들의 주류광고 출연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류광고를 단지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문화이고 양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즐겨마시는 술이 대한민국 소주처럼 값싼 고도주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오죽하면, 한국관광 포인트 중 하나가 가수 싸이 노래 "행오버" 에서처럼 자유롭게 취해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민의 술이라 하지만, 통계는 이러한 음주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에서 더 심하게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격정책, 접근성제한정책, 광고제한정책 등 효과성이 입증된 알코올정책을 포함하는 음주폐해감소정책 세계확산전략을 공표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먼가에 빠지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쟁하며 나아가는 대안 없는 우리 사회와 문화가 알코올 뿐만 아니라, 먼가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균형과 조절"을 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 공공의 문제인 알코올 등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논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독포럼 4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제5회 정신건강정책포럼

"균형과 조절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관리정책"

▪ 일정

사회 : 이해국 / 정슬기 (중독포럼 상임이사)

시 간	내 용	발표자
14:30 -15:00	접 수	
15:00 -15:05	인사말	
15:05 -15:10	내빈축사	
1부. 한국의 음주, 무엇이 얼마나 문제인가.		
15:10 -15:20	주제발표 1. 질병기여요인 산출을 통한 음주의 건강부담과 비용추계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15:20 -15:30	주제발표 2. 개인, 가족, 공동체에 음주문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회복자
15:30 -15:40	주제발표 3. 주류마케팅 등 음주조장환경의 문제점과 청소년 음주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15:40 -15:50	주제발표 4. 저가 고도주, 폭음, 만취로 이어지는 한국음주문화의 그늘	채인택 (중앙일보 논설위원)
2부. 균형과 조절을 위한 대안의 모색		
15:50 -16:00	주제발표 5. 한국 음주문제의 정치경제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16:00 -16:10	주제발표 6. 다른나라는 어떻게 음주폐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했나?	천성수 (삼육대학교)
16:10 -16:20	주제발표 7. 알코올 등 중독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과 방향	중독포럼
3부. 중독포럼 4주년 기념식		
16:20-17:00	균형과 조절을 위한 4년 - 중독포럼 활동보고	
	공로패 수여식	
	4주기 활동방향과 비전	
17:00	폐회	